

동학농민혁명 130년... 잊혀진 광주·전남 유적지

광주·전남 유적지 85곳 중 장흥·무안·화순 제외 방치상태 “예산없다” 손놓은 재단·지자체... 관리는 향토회·유족 몫

올해로 동학농민혁명(1894년)이 130주년을 맞이했지만 광주·전남지역 동학 유적지가 방치되고 있다.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2019년에는 관군을 상대로 첫 승을 거둔 함포현전투(5월 11일)를 기념해 국가제정기념일로 제정됐지만 유적지에는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9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재단)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는 총 85곳(광주 3, 강진 3, 고흥 2, 곡성 2, 광양 4, 구례 3, 나주 7, 담양 4, 목포 1, 무안 8, 보성 2, 순천3, 여수 7, 영광 3, 영암 1, 장성 2, 장흥 17, 진도 4, 함평 4, 해남 2, 화순 3곳)이다.

이중 국가사적지로 등록된 곳은 장성 함룡강 전적지와 장흥 석대들 전적지 2곳 뿐이다. 나머지는 재단이 2010년과 2019년 현지조사와 사료 분석을 통해 자체 지정한 유적지다.

지난 7일 광주일보 취재진이 찾은 나주시 대호동 함박산 전투지에서는 동학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나주성 북문인 이곳은 농민군이 나주성을 기

습하려고 주둔했던 곳이다.

광주지역 동학군 나주 동학군이 합세해 나주성을 공격해 나주성 바로 옆에 있는 함박산까지 진격했으나, 끝내 나주성 함락에 성공하지 못하고 남산촌으로 후퇴했다.

오히려 수성군의 기습 공격을 받고 큰 피해를 입고 광주까지 밀려났다. 당시 나주의 유생 이병수는 “죽은 시체가 들판에 가득했고 흐르는 피가 냇물을 이루었다”고 기록했다.

하지만 장소에 대한 설명이 적힌 안내판 등이 없어 동학 전투지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길도 제대로 나 있지 않아 접근도 어려웠다.

나주목사 내아도 마찬가지. 이 곳은 수성군의 저항에 나주 점령에 실패한 전봉준이 무장하지 않은 채 나주목사 민종렬을 만나 집강소 설치 협조와 수성군 해산 등을 논의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숙박업소로 운영 중인 내아에는 팽나무와 의로운 나주목사에 대한 안내판이 있지만 전봉준과 민 목사의 회담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었다.

농민군이 전라도 각 고을 관아에 설치해 행정 사무를 봤던 집강소터 중 하나인 함평군청에서도

동학의 자취를 알려주는 안내판을 찾을 수 없었다.

함평 학교면 고막교(석교) 전투지에는 무안군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세운 안내표지판이 있었다. 함평군은 “동학 유적지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동학은 발생 100년이 지난 후에도 민주주의의 시초로 인정받으며 뒤늦게 역사 재조명 작업이 이뤄졌다.

하지만 전남지역 동학 유적지는 재단이나 지자체가 아닌 향토회, 유족 주도로만 관리되고 있다.

유적지가 없는 신안과 완도군을 제외한 20개 전남 시·군 중에서 농민군이 활발했던 장흥, 무안, 화순군만이 기념탑, 표지석 등을 통해 기리고 있을 뿐이다.

재단은 “예산이 없어 지자체가 관리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재단은 설립 근거에 따라 동학 관련 자료의 관리, 보존 또는 유적지 정비 사업 등을 맡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에 10억여원의 관리 예산을 매년 신청하지만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자체는 지역 동학 유적지 현황조사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관리주체가 아니라며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나전수 나주목향토문화연구회 회장은 “동학 역사에서 전남은 대규모 전투가 발생한 곳이자 다수



9일 함평군 학교면 고막교(석교)전투지에 민간 단체인 함평군향토문화연구회가 마련한 안내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농민군의 처형이 이뤄진 곳이며 최후 항전지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면서 “현재 남아있는 유적지라도 제대로 관리해서 동학 정신을 후대에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학 유적지는 오늘날 동학 정신을 오래도

록 기리고 가슴에 새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유적지 안내 표지판 등을 세우고 더 나아가 유적지를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야 더 많은 이들이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주·함평 글·사진=김다민 기자 kdi@

생존율 확 늘고 癌 환자도 늘었다

광주·전남 2021년 통계 광주 암환자 첫 7000명 넘어 발생 1위 갑상선암... 전남 폐암

광주·전남지역 암환자 생존율이 10년 새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순전남대병원 광주전남지역암센터와 광주전남지역암등록본부가 8일 발표한 광주·전남지역 '2021년 암발생률 및 생존율 통계'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 최근 5년간 암 진단을 받은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은 광주 73.7%, 전남 66.6%로 집계됐다. 10여 년전(2006-2010)과 비교했을 때 광주는 4.4%p, 전남은 6.7%p 증가했다.

5년 상대 생존율을 성별로 보면 남자는 광주 67.7%, 전남 61.8%이고 여자는 광주 79.5%, 전남 72.4%로 남녀 모두 광주가 높았다. 전국(남자 66.1%·여자 78.2%)과 비교해 보면, 광주는 남녀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았고 전남은 낮게 나타났다.

또한 2021년 광주시 전체 암환자 수가 처음으로 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광주·전남 신규 암 발생자 수는 전체 1만8791명이다. 2020년 1만7083명에 비해 1708명(남자 629명·여자 1079명) 증가했다. 2021년 광주지역 신규 암 발생자 수는 7113명(남자 3471명·여자 3642명)으로 1999년 조사 시작 이래 처음으로 7000명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전남은 1만1678명(남자 6432명·여자 5246명)이었다.

2020년도 대비 광주는 636명(남자 140명·여자 496명), 전남은 1072명(남자 489명·여자 583명)으로 각각 9.8%, 10.1% 증가했으나, 전국 평균 증가율(10.8%) 보다는 낮았다.

암종별로 보면, 광주에서는 여성암으로 많이 발생하는 유방암과 갑상선암의 발생률이 눈에 띄었다. 2021년 광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폐암, 위암, 전립선암 순이었다. 전남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폐암, 위암, 대장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 순이다.

성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 광주·전남 모두 폐암이 1위를 차지했고 전립선암, 위암, 대장암, 간암이 뒤를 이었다. 여자는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폐암 순으로 나타났다.

/이유민 기자 lyb54@kwangju.co.kr

인권위 “피의자에 추가 혐의 미고지는 방어권 침해”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추가 파악한 범죄 혐의를 피의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조사한 것은 방어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는 9일 “광주의 한 경찰서장에 형사피의자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두 번째 경찰조사에서 스톱킹 혐의가 추가돼 조사를 받았음에도 경찰이 이를 알리지 않아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등의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5일 오후 7시 40분께 편

의직 직원의 신고로 업무방해와 퇴거불응을 이유로 현행범 체포돼 조사를 받은 후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자신에게 스톱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추가된 사실을 알게됐다.

경찰은 “수사결과 진정인의 스톱킹 처벌법 위반 혐의도 확인됐으나 A씨를 상대로 두 차례 피의자 신문은 하면서 스톱킹처벌법 위반 혐의나 범죄자를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고 조사를 했다”고 인정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업계 1위’ 실내골프연습장 맞나 골프존 ‘221만명 정보 유출’ 과징금 75억

국내 실내골프연습장 분야 업계 1위 업체인 ‘골프존’이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서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221만여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유출해 국내 업체 중 역대 최대 과징금인 75억 여원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8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해커에 의한 랜섬웨어(악성 소프트웨어로 데이터나 PC 등을 암호화한 뒤 이를 풀려면 보상을 요구하는 형태의 공격) 공격을 받았다.

골프존 직원들의 가상사설망 계정정보를 탈취해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원격 접속한 뒤 이곳에 저장된 파일이 다크웹에 공개됐다.

파일에는 221만여명의 서비스 이용자 및 직원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아이디 등 각종 개인정보가 담겼다. 또 5831명의 주민등록번호와 1647명의 계좌번호도 공개됐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전 직원이 사용하는 파일서버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량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공유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뿐더러, 파일서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골프존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은 채 파일서버에 보관하고 있었고, 보유기간을 넘기거나 처리 목적을 달성해 불필요해진 38만여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사고 발생 당시 골프존은 “랜섬웨어로 인한 서버 디스크 파손으로 골프존 웹, 앱, 점포 운영 사이트 등의 정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회원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골프존에 대해 안전조치의 무 위반으로 과징금 75억4000만원을, 개인정보 파기의무 미준수로 과태료 54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처분은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첫 사례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그린알로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